



오전 9시
오전 11시

교회소식

2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말씀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환우를 위한 기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찬 28)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 301)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찬 270)

내 주님 서신 발앞에(찬 214장 4절)

사도행전 28:16-28

주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선언하고”

선한 능력으로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2월의 공동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2월 27일(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정주애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새벽기도회**는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5.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지난 17일 보도에 의하면 뉴욕주 법원 내에서 사회적거리를 6ft에서 3ft로 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기승을 부리던 오미크론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감염률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이제는 코비드와 함께 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유럽과 미국이 자유왕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답답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배영상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미디어부에서 장비 일부를 교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원천적인 해결은 아닌듯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예배를 위한 장비들이 거의 수명이 다한듯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향장비와 영상장비는 모두 오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체하지 않았던 것은 새예배당에 곧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예배당에 입당하면 음향장비, 영상장비가 모두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예배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예배는 계속 현장과 영상이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사람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코비드가 이미 많은 것을 바꾸었고, 또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강의, 책, 방송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의 종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니라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더 맞는 말로 보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있다면,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시작한 영상예배이지만, 이제는 영상예배가 오히려 예배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편해서 선택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성수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럴때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